

『토지』 연구의 새로운 길 트기, 인물들의 다성악에 녹아든 생명사상 읽기

김 양 선*

1

김윤식 교수가 박완서의 작품 세계를 일컬어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세계라 평한 적이 있지만,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그런 평가에 걸맞는 또 다른 작가로 박경리를 드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박경리의 『토지』는 26년에 이르는 집필 기간, 4만여 장에 달하는 분량이라는 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행로,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50여 년에 이르는 서사 시간,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도저한 사상적 깊이라는 면에서도 우리 문학사에 의미심장한 발자취를 남겼다. 거기에다 단일 작품에 들인 작가의 공력과 그것에 값하는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토지』는 하나의 문학사적 사건이라 불리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토지』는 작품이 쓰여지는 와중에도, 그리고 5부까지 완간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촉발하고 있다. 마치 세헤라자데의 「천일야화」처럼 『토지』는 연구자들에게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열린 텍스트이며, ‘이야기’가 지닌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는 텍스트이다. 지금도 『토지』에 ‘관한’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

『토지』의 방대함에 필적해 『토지』 연구도 그 규모를 짐작키 어려울

* 서강대 강사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토지』는 비단 문학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역사학, 인류학 쪽에서도 참조가 될만한 귀한 텍스트로 자리잡았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소설의 장르적 경계를 넘어, 우리 근현대사를 충실히 기록한 역사서이자 당대 삶의 풍속도를 재현한 박물관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작가 박경리와 『토지』에 대한 연구는 『작가세계』(1994년 가을)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이래, 작품이 완간된 시점인 1994년 이후 『한, 생명, 대자대비』(솔출판사, 1995), 『『토지』와 박경리의 문학』(솔출판사, 1996), 『『토지』를 읽는다』(최유찬, 솔출판사, 1996)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단일 작품으로는 최초로 사전이 발간되기도 했다(임우기·정호웅 편, 『『토지』 사전』, 솔출판사, 1997).

이번에 연구목록에 새로이 등재된 이상진의 『『토지』 연구』(월인, 1999)는 저자의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특히 700여 명에 이르는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포괄하려는 노고가 돋보이는 연구서이다.

2

저자는 지금까지 『토지』 연구가 역사,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접근법과 장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물형상화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토지』에 창조된 700여 명의 인물들이 서사와 주체의 주체로서, 또 수단으로서 다양한 층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적 특성과 작가의 세계관을 밝혀내는' 데 관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문학은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삶의 이야기인 문학의 목적은 사람살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관점은 어찌보면 소박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그의 소박함은 우리 연구자들이 쉽사리 망각해왔던 덕목이기에 그 의의를 선불리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토지』 자세히 읽기'를 위해 저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관점'을 견지

하고, 정신분석적 연구방법과 사회문화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인간문제가 현재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토지』의 기본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은 저자 스스로도 경계하듯이 작품의 방대함과 작가의 세계관에 포섭되어 버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을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로 삼아 재단해 버리는 일부 연구자들의 알팍한 연구 자세에 비춰볼 때, 저자의 자세에서 작품의 진의에 다가가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연구자들이 갖추어야 할 일차적인 조건이 작품에 대한 애정임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다.

3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맨 뒤에 작중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몇 장 몇 부에 등장하는지를 기재한 부록 1과 작가, 작품과 관련된 연구서지를 수록한 부록 2가 달려 있다.

1장에서는 기존 『토지』론의 지형도를 그리고 한계를 지적한 뒤, 자신의 연구방법론을 밝히고, 2장에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의 일관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 이전에 나온 글들을 소설 뿐만 아니라 시, 수필, 강의록까지 포괄하여 점검하고 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본격적인 인물 연구에 해당된다. 각 장의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다. 3장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존재조건과 욕망, 삶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내재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작가의 인간관을 규명하고 있다. 이 장은 저자가 가장 공력을 들여 연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존재양태를 세 부류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타존재와의 관계에 따른 당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 상황을 변

화시키는데 이기적 인물들로 임이네, 김평산, 조준구, 귀녀, 김두수, 우개동, 배설자, 평사리 농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부류는 당위에만 매달려 고뇌하다가 욕망도 성취하지 못한 채 자신과 주변인까지 좌절하게 만드는 인물들로 송관수, 송영광, 이동진, 이상현, 김훈장, 박씨, 기성네, 개화기 신여성들, 조찬하, 유인실, 오가다를 들고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존재와 당위간의 모순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여 자기 성취를 이뤄내는 인물들로 김환과 조병수, 최서희, 김길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인물 분석을 통해 작가의 진의가 세 번째 부류의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고, 여기서 인간에 대한 연민, 자타불이(自他不二), 대자대비와 같은 작가의 세계관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토지』의 등장인물들은 각인각색 저마다 생동감을 지니고 있지만, 선/악의 명징한 이분법을 따라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 또한 이같은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작가의 생명사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서사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서희나 길상 등의 인물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이고 비중있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해당 인물들이 지닌 복합적 국면이 세심하게 고찰되면서, 선인의 악한 기질, 부정적 인물이 악에 이르게 된 경로가 규명되고는 있다. 하지만 ‘권선’과 ‘징악’의 도덕적 관점을 사회구조와의 관련성에 천착해 보면서 인물들의 욕망이나 행위를 평가한다면, 이분법적이고 도식적인 평가라는 반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작품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작가의 생명사상에서 비롯된 인물창조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 그것도 제3자들의 전언 형태로 사건이 설명되고 필요할 경우 서술자의 설명이 덧붙여지는 방식에 주목

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물들 모두가 서술자가 되는 이와 같은 독특한 담론 형태는 저자에 따르면 ‘생명사상’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저자는 단순한 서사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작가의 세계관과 관련지어 상당히 설득력있게 해명하고 있다. 굳이 트집을 잡자면 시차를 둔 전언이든, 집단을 둔 전언이든 전달자가 주로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 그 중에서도 민중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들의 다성악적 목소리가 지닌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작가의 생명사상이 좀더 풍부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5장에서는 각 인물묘사에서 드러난 점을 바탕으로 문체적 특징과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토지』의 인물묘사는 외양묘사에 치중해 있고, 인물의 ‘도덕적 자질’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묘사방식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는 감각적, 비유적 이미지나, 집의 은유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인물 묘사에서 추출되는 긍정적, 부정적 인물과 지식인형 인물의 묘사가 3장의 주제적 차원에서 살펴본 인물유형과 거의 일치하며, 그것이 도덕성에 기초를 둔 작가의 인간관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묘사의 특성이 작품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든 점은, 저자가 주로 전반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인물묘사에서 드러난 특징을 인물의 ‘도덕적 자질’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경우, 일종의 환원론적 오류, 즉 모든 평가를 도덕적 특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작가의 세계관인 생명사상을 검토하면서, 이를 작품의 비종결적 특성, 인물들의 행동과 사상에 드러나는 인간문제, 인물창조와 형상화의 원리 및 서술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작가의 생명 사상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작가가 『토지』 이외의 글에서 밝힌 바 있

고, 근자의 사상적 편력에서 엿볼 수 있는 생명사상의 깊이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작가의 생명 사상을 설명하면서 한, 대자대비, 연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평한 태도와 같은 유사한 어휘들의 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저자는 작품의 비종결성이 세계의 무한성과 생존의 유구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넘어선 고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말대로 『토지』 1,2부에서 인물들은 주변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개성을 갖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실감있게 묘사된 바 있다. 하지만 4, 5부로 올수록 인물의 정형성, 유형성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담론도 작가의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물로 기능하면서, 관념적인 담론이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토지』 5부가 ‘종결을 향해 내용이 응집된다기보다 오히려 인물과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도 저자처럼 ‘열린 텍스트’로 볼 수 있겠지만, ‘미완의 텍스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

4

『‘토지’ 연구』는 한 작품에 대한 연구자의 애정과 열정이 오롯이 배어 있는, 오랜 시간 한 작품에 매달려 온 작가의 노력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서이다. 이론적인 독단에 사로잡힌 채 객관적 연구 태도라는 이름으로 작품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근자의 잘못된 학문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작품에 대한 저자의 겸허하고 애정어린 시선은 귀감이 될 만하다. 실상 『토지』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사람살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간학 교과서이자 역사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연구자들에게는 여간한 철학적, 사회 역사적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접하기 힘든 버거운 텍스트이기도 하다.

연구자의 열정은 『토지』의 등장인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록1과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분류해 정리한 부록 2에서도 확인된다. 두 부록은 그것만으로도 자료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지』를 연구할 후학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작가가 '자타불이'의 생명사상을 역설했듯이, 연구자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생각한다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연구자도 고백하듯이 연구 대상에 대한 비판적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물론 연구의 객관성이나 질이 비판을 통해 담보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층층이 쌓인 『토지』의 수많은 결을 읽어낸 것만으로도 연구자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 텍스트로서의 『토지』는 4, 5부로 올수록 인물형상화나 구성 방식에서 앞의 부분과 현격히 차이가 나며, 작가의 사상이 채 걸러지지 않은 채 담론화되면서 형상화를 훼손하는 것도 사실이다. 혹 저자가 『토지』가 담아 놓은 여러 갈래 길에서 서성대다가 이 점을 놓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는 저자가 작가의 세계관으로 설정한 생명사상에 대한 좀 더 심도있고 풍부한 접근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점이다. 저자는 작가의 생명사상을 자타불이, 연민, 대자대비, 우주적 포용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사상의 근원에 천착해서 그것이 불교나 동학과 같은 우리 토착 사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태주의와 관련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 담론으로서도 어떤 현재적 의미가 있는지를 밝힌다면 논의의 단조로움이나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자가 인물 형상화나 서술방식과 작가의 세계관을 연결짓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물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연구자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문학적 관점으로 『토지』 전체를 읽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는 않다. 그렇지만 작가가 ‘정절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여성을 속박한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여성들을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하거나, 불륜이야기를 신비화하는 것이 당대 여성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려는 고도의 서사화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고 싶다. 이들의 당당함이 오히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추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작가의 추상적인 인식’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여성에 대한 비판도 당사자들의 고백으로 제시되어 설득력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작가가 신여성들의 타락이나 부정적 모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사회구조적 원인을 천착했는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남성 인물들과 비교해서 여성 인물들이 서사에서 균형있는 시각으로 다루어졌는가의 문제, 주동 인물인 서희가 작품 전체에 걸쳐 일관된 성격을 견지하는 데 반해, 전반부에서 생동감있게 그려졌던 민중 여성들의 형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희석되어 버리고 만 문제 등은 여전히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토지』에 접근할 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적은 어찌보면 『토지』를 연구하면서 지자가 체감했을 생의 부피를 절감하지 못한 자의 설익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한 몇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토지』 연구에 또 다른 길을 트는 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